

6.25 전쟁기 국립박물관 소장품의 국외반출 과정에 대한 신고찰

김현정 대한민국의사박물관 학예연구관

gadinma@gmail.com

국문초록

1950년대 국립박물관의 대표적 성과는 6.25전쟁기 소장품의 부산 피난과 1957년 미국순회전시인 '한국국보전'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연구에서는 이 두 사건을 개별적 사안으로 다루었다. 하지만 최근 새로운 사료들이 발굴되면서, 이 두 사건은 1950년대 국립박물관을 관통하는 하나의 사안이라는 점이 밝혀지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도 두 사건이 어떤 전개 과정을 통해 하나의 사안으로 이어지는지를 고찰하고자 했다.

국립박물관의 피난을 1950년 12월부터 1951년 5월 사이에 단행된 4차례의 소장품 이전으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부산 피난은 국립박물관 전체 피난사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부산 피난 이후 전개된 미국 본토로의 반출 계획과 뒤이은 하와이 호놀룰루로 반출 추진이 문화재 피난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1950년 12월의 부산 피난은 중국군 개입으로 인한 긴급대피이면서 미국으로 이송하기 위한 선행 조치였다. 부산 도착 직후 미국반출 논의가 상당히 진척되었으나, 미국 정부의 반대로 중단되었다. 그렇지만 1951년 3월부터는 미국 본토가 아닌 하와이 호놀룰루로 반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피난 문화재의 국외 반출 문제는 종결이 아니라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정부가 하와이의 사립 기관인 호놀룰루미술관으로 피난 문화재 반출을 도모하면서부터 문화재 피난의 성격은 모호해졌다. 처음에는 피난 문화재 전량을 호놀룰루미술관에 보관 즉 소개(疏開)하려 했다. 그러나 여론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게 되자, 소개 개념을 완전히 제거하고 국가 홍보를 위한 미국 순회전시로 반출목적을 변경해가며 3차례에 걸쳐 국회에 동의를 요청했다. 정부는 호놀룰루미술관으로 반출이 '국보파동'이라는 비난을 들으면서도 중단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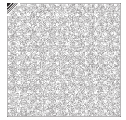
그런데 어렵게 국회의 승인을 받은 이후 문화재 국외 반출 성격이 급변하였다. 그동안은 문화재 국외 반출 문제의 중심에는 늘 호놀룰루미술관장 그리핑이 있었다. 그런데 제 3차 국회동의요청안이 통과된 피난 문화재 국외반출은 그리핑이 아닌 미 국무부가 주도하는 미국의 대한문화정책 차원에서 전개되었다. 이때부터는 국외반출의 목적에서 '소개' 개념이 완전히 지워지고 오로지 전시로서 개념화된 것이다. 그 결과가 바로 1957년 개최된 한국국보전이었다.

지금까지는 호놀룰루로의 반출문제가 거의 연구되지 않아 1950년 부산 피난과 1957년 한국국보전 사이에는 오랜 시간적 공백 혹은 단절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두 사건은 마치 별개의 사건으로 인식되어 왔다. 호놀룰루로 반출 문제는 국립박물관의 문화재 피난사 전모를 보여주는 사건이면서, 국립박물관의 부산 피난이 한국국보전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핵심 내용이다.

주제어 국립박물관, 피난, 6·25 전쟁, 호놀룰루미술관, 김재원

투고일자 2023. 12. 31. | 심사일자 2024. 1. 29. | 게재확정일자 2024. 2. 23.





I. 서론

6.25 전쟁 당시 국립박물관의 ‘문화재 부산 피난’은 전쟁의 참화에서 문화재를 안전하게 지켜낸 현대사의 상징적 한 장면으로 회자된다. 그리고 1957년 미국에서 개최된 ‘한국국보전’은 전쟁 후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세계에 알린 첫 국외 전시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이 두 사건은 1950년대 국립박물관의 대표적인 업적이자 자긍심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의 위상은 여기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²

그런데 이 두 사건은 그 위상과 중요도에 비해 상세한 내용이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다. 대체로 당시 국립박물관장의 회고를 근간으로 간략히 소개되는 정도이다.³ 두 사건에 대한 일반적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립박물관의 부산 피난은 1950년 말에 중국군의 참전으로 서울이 다시 위협해지자 주요 문화재를 긴급히 부산으로 소개(疏開)한 사건이다. 이후 전황이 심상치 않아 부산 피난문화재를 하와이로 옮기려 했으나, 상황이 호전되면서 국외 반출은 중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한국국보전은 우리 문화의 국제 선전이 시급하여 전쟁 이전부터 논의되던 미국전시 계획을 휴전 이후에 다시 추진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⁴ 즉 두 사건은 소개와 전시라는 두 개념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새로운 사료들이 발굴되면서 이 두 사

건은 1950년대 국립박물관을 관통하는 하나의 사건이라는 점이 밝혀지고 있다. 이 중 정무정은 록펠러 아카이브 센터(Rockefeller Archive Center)에서 새로운 자료를 발굴하여 국립박물관의 부산 피난이 미국의 한국국보전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단계별로 상세히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부산 피난의 성격이 대피에서 전시로 바뀌어 가는 양상을 상세히 조명했다.⁵ 그리고 이광표는 6.25 전쟁 이후 문화재 소개가 한국국보전으로 전환되는 과정 중 3차에 걸친 국회동의요청에 주목하여, 이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의 핵심 내용과 그 의미를 다루었다.⁶ 이들 연구는 1950년 국립박물관의 부산 피난과 1957년 미국에서 한국국보전은 하나의 사안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다만 아쉽게도 이 연구들은 피난에서 전시로의 전환을 그저 전세의 호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문화재 국외반출을 둘러싼 엄청난 논란의 중심에 호놀룰루미술관이라는 특정 기관이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 필자가 부산 피난과 그 이후 국외 반출 논란을 면밀하게 검토해 본 결과, 한국국보전은 국립박물관의 부산 피난에서 시작된 하나의 사건이 분명하다. 하지만 그 두 사건 사이에는 호놀룰루미술관으로 반출 문제가 크게 자리잡고 있다. 이 사안은 국립박물관의 피난사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았지만 1950년대 국립박물관을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 사안이다. 이 사안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부산 피난과 한국국보전이 하나의 사건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호놀룰루미술관으로 반출계획에 집중하여

1 본고에서 피난, 반출, 소개라는 용어를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았다. 다만 피난은 긴급대피라는 상황에, 반출은 옮기는 행위에, 소개는 피난의 목적과 성격에 방점을 두고 달리 사용하였다.

2 김재원(김리나), 2019, 『세계인으로서 한국문화를 알리다』, 『박물관에 살다 한국 박물관 100년의 사람들』, 동아일보사, pp.12~41.

3 김리나, 2014, 『한국전쟁 시기 문화재 피난사』, 『미술자료』 86; 장상훈, 2019, 『국립박물관 아카이브 기행 15~20호』, 『박물관신문』, 국립중앙박물관; 장상훈, 2020, 『6.25전쟁 시 국립박물관의 문화유산 수호』, 『6.25 전쟁과 문화유산 보존』, 6.25전쟁 70주년 계기 학술심포지엄, 국립고궁박물관; 장상훈, 2022, 『한국전쟁기 문화재 부산 소개와 국립박물관의 부산 활동 연구』, 『문화재』 55(2).

4 김재원, 1992, 『박물관과 한평생』, 탐구당, p.128.

5 정무정, 2020, 『한국전쟁과 국보해외소개(疏開) 소개』 그리고 록펠러재단, 『한국근현대미술사학』 40, pp.7~25.

6 이광표, 2022, 『6·25 전쟁기 '문화재 해외 반출' 논란의 의미와 성과』, 『한국학연구』 67, pp.603~641.

부산 피난과 한국국보전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하나의 사안으로 이어지는지를 살펴보았다.

II. 국립박물관 소장품의 부산 피난

1. 문화재 부산 피난의 배경

1950년 12월 초, 국립박물관이 1.4후퇴에 앞서 미리 부산으로 긴급대피하여 미국 소개를 도모할 수 있었던 것은 전쟁 직후 북한군 치하에서 국립박물관의 주요 문화재가 복송될 뻔한 위기 경험과⁷ 경주분관 소장품의 미국 소개조치 선례에서 기인했다.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6월 28일 북한군은 국립박물관을 완전히 장악했지만, 남한 박물관 접수 그 자체가 목적이었기에 한동안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⁸ 그러다가 인천상륙작전 성공으로 북한군의 전황이 불리해지던 7월 중순 혹은 8월 초부터⁹ 북한군은 남한 문화재를 포장하며 복송을 준비했다.¹⁰ 유엔군의 총공세로 퇴각이 다급한 상황에도 북한군은 포장된 남한 문화재를 복송하려 했으나, 문화재 이동 시기를 놓쳐 어쩔 수 없이 문화재 이송을 포기하고 퇴각했다.¹¹ 이렇게 복송의 큰 위기를 넘겼지만,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문화재가 다시 북한군의 수중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는 계속되었다.

경주분관 소장품이 미국으로 소개되던 당시 정세를 보면, 1950년 7월 한 달 동안 국토의 90%가 북한군 수중으로 넘어가는 긴박한 전황이었다.¹² 그래서 정부는 경주분관의 주요 소장품을 영토 내 소개가 아니라 미국으로 소개 조치했다. 7월 25일의 1차 소개 대상은 금관총 금관을 비롯한 제1급 유물 15점, 그리고 7월 28일 실시된 2차 소개는 반월형 석도 등 124점이었다. 두 차례에 걸친 총 139점 소개품은 재무부 장관에게 인계된 후,¹³ 재무부 소관인 한국은행 금괴와 함께 1950년 8월 1일에 미국 상선에 실려 샌프란시스코로 이송되었다.¹⁴

정부에 의한 경주분관 소장품의 미국 소개는 국립박물관 소장품의 국외 소개 가능성을 열었다. 그래서 국립박물관장 김재원¹⁵도 미국 지인에게 경주분관품의 미국 소개 사례를 강조하며, 한국 문화재의 미국이송 지원을 요청했다.¹⁶

2. 1.4후퇴 직전 부산 긴급대피

국립박물관의 부산 피난은 1950년 12월 초부터 시작되어 1951년 5월 중국군 춘계대공세 직전까지 크게 4차례에 걸쳐 단행되었다. 1~2차 피난은 맥아더 사령부가 중국군의 대규모 개입을 공식 발표¹⁷ 직후인 1950년 12월이었고,¹⁸ 3~4차 피난은 이듬해 1951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실행되었다.

7 김재원, 1973. 『여당수필집』, 탐구당, p.279.

8 국립박물관은 북한군의 초기 박물관 점령 목적을 '보관'으로 기록했다(제3대 국회 제20회 제79차 국회본회의, 1955. 07. 28.).

9 복송을 위한 포장 시점이 자료마다 조금씩 다르다. 국립박물관은 7월 중순, 황수영은 7월 말 그리고 이구열은 8월 초 등으로 기록했다.

10 국립박물관 소장품 이외 덕수궁미술관, 전형필과 손재형의 개인 소장품도 포장되었다.

11 Letter from Gregory Henderson to Charles B. Fahs, Oct. 26, 1950.(Rockefeller Foundation records, RG1.2, F24 / 이하 RF_RG1.2_F24)

12 김철수, 2017. 『그때는 전쟁, 지금은 휴전 6.25』, 플래닛미디어, p.125.

13 국립중앙박물관, 2019. 『6.25전쟁과 국립박물관』, p.36.

14 「금괴 1.1t 트럭에 싣고 피란길 올라 ... 은 16t은 포기」, 『중앙선데이』, 2016.09.11.

15 김재원(1909~1990)은 광복 직후 1945년부터 1970년까지 약 25년을 국립박물관장을 역임했다.

16 Letter from Chewon Kim to Langdon Warner, October 18, 1950.(RF_RG1.2_F24)

17 이상호, 2016. 『한국전쟁기 미국의 한국정부 해외 이전 계획』, 『군사』 101, pp.187~188.

18 국립박물관 소장품의 부산 피난은 공식적으로 총 4차례였다. 하지만 전체 피난 문화재 수량이나 원로들의 회고를 참고할 때, 몇 차례 더 추가 피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차 부산 피난은 1.4후퇴 이전인 1950년 12월 초에 갑작스레 떠난 긴급대피였지만, 피난 구상은 서울 수복 직후부터 있었다. 김재원은 서울수복 직후인 10월에 이미 문교부 장관 백낙준에게 국립박물관 소장품의 미국 이전을 여러 차례 건의했다.¹⁹ 이때는 유엔군과 국군이 북으로 진격하고 있었고, 평양의 박물관 점수를 계획할 정도로 전세가 좋았기 때문에 미국 이전 건의는 수용되지 않았었다. 그러다가 대규모의 중국군 참전으로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맥아더 사령부가 공식 발표하자, 백낙준은 11월 30일 급히 국립박물관 소장품의 '영토 내' 안전지대로 이전을 허가했다.²⁰ 김재원은 영문으로 된 소개 허가서를²¹ 받고 주한미국대사 무초에게 운송 수단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한국 문화재의 철수는 한국정부의 책임이라며, 무초는 피난 지원을 사실상 거부했다.²² 주한미국대사는 거부했지만, 김재원과 오랜 친분이 있던 부산 미공보원장 유진 크네즈(Eugene I. Knez)²³가 운송 수단을 확보해줬다. 장관의 소개 승인과 크네즈의 지원으로 국립박물관 소장품 2,088점과 덕수궁미술관 소장품 4,809점은 급히 서울을 떠나 1950년 12월 10일 부산에 도착했다.

1차 피난이 준비 없이 떠난 긴급대피라는 점은 여러 정황에서 확인된다. 국립박물관은 피난 문화재의 보관 장소도 마련하지 않은 채 일단 부산으로 출발하였다. 그래서 도착 직후에는 보관처가 없어 미공보원 창고

에 보관하다가 관재청 창고를 얻은 후에야 피난 문화재를 옮겼다. 게다가 국립박물관은 피난지 부산에서 박물관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행정조치도 해 두지 않았다.²⁴ 이런 상황은 소개품 구성에서도 엿볼 수 있다.²⁵ 공산 치하에서 북송을 위해 덕수궁 석조전으로 옮겨진 국립박물관의 1차 포장품 1,228점은 최상위 전시품 위주였다. 그런데 부산 피난 직전의 2차 포장품 860점은 그렇지 않았다.²⁶ 부산 피난 직전의 2차 포장품은 주요 전시품을 선별한 것이 아니라, 경복궁 내 국립박물관에 남아 있던 소장품 중 일부를 급하게 추가 포장한 것으로 보인다.

1차 피난 열흘 후 국립박물관의 2차 피난이 12월 15일에 이뤄졌다. 문교부 차관의 지휘하에 정부의 예산으로 실행된 공식적인 소개였다. 1차 피난은 피난 열차에 동승한 국립박물관의 간부급 직원들만 알았다. 잔류 직원들은 관장 일행이 출장을 떠난다고 생각했다가 덕수궁 석조전 지하창고가 빈 것을 보고 나서야 눈치를 췌다. 국립박물관의 부산행을 뒤늦게 파악한 문교부 차관은 국립박물관의 잔여 소장품 상황을 파악하고, 그 중에서 주요 소장품을 선별하여 2차 부산 피난을 위해 예산과 차량을 마련하였다. 박물관 직원 김상익과 임천은 박물관을 정리하며 비교적 차분히 2차 피난을 준비할 수 있었다.²⁷ 2차 피난은 회화, 고지도 그리고 도자기가 중심이었다. 국립박물관의 주요 회화가 이때 부산으로 이전되었다.

19 Letter from Chewon Kim to Langdon Warner, October 18, 1950.(RF_RG1.2_F24)

20 김재원, 1992, 『박물관과 한평생』, 탐구당, p.122.

21 김재원은 소개 허가서가 영문으로 작성된 것은 시민들의 동요를 우려한 비밀 유지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 피난은 국립박물관만의 비밀스러운 상황이 아니었다. 문교부 장관의 지시로 서울대 규장각도서관과 국립도서관도 국립박물관과 같은 열차로 부산으로 피난갔다. 따라서 비밀유지보다는 영문 허가서가 필요한 상황에 대비한 조치로 보인다. 실제로 부산 피난 중 미군의 검문 등에 활용되었다(김재원, 1973, 『여당수필집』, 탐구당, p.279).

22 Eugene I. Knez, 1997, 『한 이방인의 한국사랑』, 국립중앙박물관, p41.

23 유진 크네즈(Eugene I. Knez, 1916.5.~2010.6.)는 미군정기 학무국장을 했고, 6.25.전쟁 당시 부산 미공보원장으로 근무했다.

24 김재원, 2005, 『東西를 넘나들며』, 탐구당, p.403.

25 <국보소개 관계철>1954 (국가기록원, BA0806526)

26 누름세[漢書鎮, 유물번호: 본관 6,696] 종류로 시작하며, 이외 많은 유물도 비슷한 수준이다.

27 한국박물관 100년사 편집위원회, 2009, 『한국박물관 100년사, 자료편』, 국립중앙박물관 한국박물관협회, pp.371~409.

이렇듯 1950년 12월에 단행된 국립박물관 소장품의 1~2차 부산 피난은 중국군 참전으로 서울이 다시 적군의 수중으로 들어갈지도 모르는 위기감에서 급히 떠난 피난이었다. 하지만 부산은 목적지가 아니었다. 김재원은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도쿄 연합군최고사령부(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이하 SCAP)를 비롯한 미국 지인들에게 피난 문화재의 미국 반출 지원을 요청했다.

3. 미국 소개(疏開) 방안 모색

국립박물관은 1950년 12월 초에 부산으로 피난 갔으나 염두에 둔 피난지는 부산이 아니라 미국이었다. 이런 미국으로 반출 구상이 1950년 10월경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 김재원이 미국 지인들에게 보낸 여러 편지에서 명확히 확인된다. 먼저 랭던 워너²⁸에게 보낸 1950년 10월 18일자 편지를 살펴보면,²⁹ 전쟁이 확대될 경우에 국립박물관과 덕수궁미술관의 소장품을 어떻게든 미국으로 옮겨주기를 부탁했다. 경주분관 소장품의 미국 소개 사실을 상기시키며, 한국문화재를 미국에서 순회전시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문교부장관에게 미국 소개를 건의하여 어느 정도 허가를 받았다는 점을 언급하여 미국 정부로부터 운송 수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워너가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록펠러재단의 찰스 파스³⁰에게 보낸 10월 19일자 편지에는 전쟁 이후 김재원 자신이 겪은 상황과 부역 혐의로 해고된 박물관 직원 등의 소식을 담았다. 한국을 벗어나 가족과 함께 1~2년 정도 유학하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 담겼다.³¹ 즉 김재원은 1950년 10월 중순 이전부터 국립박물관 소장품의 미국 소개를 구상했고, 운송 수단 확보 등 구체적인 방안을 찾고 있었다.

미국반출을 위한 김재원의 본격적 행보는 피난 직전인 1950년 12월 2일 SCAP의 민간정보교육국(CIE)³²에 편지를 보내며 시작되었다.³³ 핵심 내용은 한국의 상황이 매우 좋지 않으니 CIE가 나서 국립박물관 소장품을 영토 밖 안전지대로 이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이다. 문교부 장관도 이를 희망한다고 전하며³⁴ 개인적 의사가 아니라 정부 차원의 요청이라는 점을 밝혔다. 부산 도착 직후 12월 12일에는 파스에게 다시 편지를 보내어 미군이 철수하면 소장품과 함께 국외로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다.³⁵ 또한 크네즈에게는 국립박물관 소장품이 부산에 안전하게 도착하였고, 일본이든 어디든 국외로 떠날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SCAP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³⁶ 이뿐 아니라 미국의 일본학회 회장에게도 편지를 보내어 한국 문화재의 국외 반출에 SCAP와 미국 정부가 나설 수 있도록 애써달라고 부탁했다.³⁷

28 랭던 워너(Langdon Warner, 1881~1955)는 하버드대학을 졸업한 동양미술 연구가이다. 1946년 3월 연합군최고사령부(SCAP)의 시민정보교육과 예술 및 기념물 부서의 고문으로 임명되었다.

29 Letter from Chewon Kim to Langdon Warner, October 18, 1950.(RF_RG1.2_F24)

30 찰스 버튼 파스(Charles Burton Fahs, 1908~1980)는 미국전략사무국(OSS) 극동연구부장 출신으로 1946년부터 록펠러재단에서 인문학 부장으로서 아시아 지역을 담당했다 김재원과 김원룡의 미국 연수, 국립박물관의 부산 피난 긴급자금, 한국조형문화연구소 설립 등 국립박물관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파스에 의해 이뤄졌다.

31 Letter from Chewon Kim to Fahs, October 19, 1950.(RF_RG1.2_F24)

32 도쿄 연합군최고사령부 산하 맥아더의 자문기구이다. 일본의 언론, 교육, 종교에 남아 있는 군국주의를 제거하고 민주주의 이상과 원칙을 선전하고 교육하는 임무를 맡았다(박수현, 2018, 『해방의 공간, 점령의 시간』 푸른역사, p.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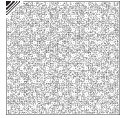
33 Letter from Chewon Kim to George Kates, Dec. 2, 1950.(『한국박물관 100년사, 자료편』, pp.537.)

34 1950년 11월 30일에 작성된 소개 허가서에는 '영토 내 이전(removal of them to safe locality within our territory)'을 명시했다. 부산 피난 이후에는 '영토 밖 이전'에 동의한 것으로 추측된다.

35 Letter from Chewon Kim to Charles B. Fahs, Dec. 12, 1950.(RF_RG1.2_F24)

36 Letter from CIE to G-1, Dec. 18, 1950.(『한국박물관 100년사, 자료편』, p.539.)

37 Telephone conversation between Louis Ledoux and Charles B. Fahs, Jan.5, 1951.(RF_RG1.2_F25)



부산 도착 직후 피난 문화재의 미국 반출을 위해 관련된 여러 인사들이 각자 바빠 움직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무산되었다. 백낙준이 크네즈에게 보낸 1950년 12월 24일자 편지를 보면, 정부는 피난 문화재의 미국 운송에 위한 적절한 방법 즉 공식적 외교적 방안을 찾고 있었다. 그런데 1951년 1월 13일 미 국무부는 피난 문화재를 일본 도쿄제실박물관으로 이송을 제안하자,³⁸ 한국 정부는 이 제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³⁹ 그러나 미 국무부는 재원도 없지만, 전세가 호전되고 있으므로 한국 문화재 국외반출 문제를 재검토하라고 주한미 대사관에 지시했다.⁴⁰

이런 국제적 분위기와 달리, 국립박물관은 1950년 12월 부산으로 1~2차 긴급 대피한 국립박물관 소장품 전체에 대한 영문 목록〈List of Evacuated Articles〉⁴¹을 작성하는 등 국외 반출 준비를 하고 있었다.⁴² 그러나 1951년 2월 28일에 주한미국대사관과 문교부가 박물관 소장품을 부산 보관으로 결론을 내자,⁴³ 문화재의 미국 반출 문제는 공식적으로 종결되는 듯 보였다.

Ⅲ. 피난 문화재의 하와이 반출 추진

1. 호놀룰루미술관으로 반출계획

일단락된 피난 문화재의 국외 반출 문제는 하와이 호놀룰루미술관장 로버트 그리핑⁴⁴의 1951년 3월 5

일자 편지로 다시 부상했다. 그리핑은 SCAP의 정치고문에게 한국 문화재의 호놀룰루미술관 보관 계획을 알렸다.⁴⁵ 피난 문화재를 국외로 이송하지 않고 부산 보관으로 결정한 지 1주일밖에 되지 않는 시점이었다. 표면적으로 그리핑이 먼저 한국 문화재의 보관을 제안했지만, 실제로는 이승만 대통령이 요청했다.⁴⁶ 피난 문화재의 미국으로 반출이 원활치 않자 한국 정부는 호놀룰루미술관과 별도로 접촉하여 문화재의 국외반출 문제를 협의했던 것이다. 이로써 피난 문화재의 국외 반출은 정부 간 논의에서 한국 정부와 미국 사립미술관 간의 문제로 성격이 바뀌었다.

그리핑의 제안은 그야말로 파격적이었다. 한국 문화재가 안전하게 복귀할 때까지 호놀룰루미술관이 무료로 피난처를 제공하고, 문화재의 관리와 보관에 필요한 비용도 부담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김재원을 ‘특별소장품 큐레이터’로 채용하여 최소 5천 달러의 연봉을 지급하고, 한국 문화재의 관리 권한을 그에게 맡기겠다고 했다. 그리핑이 이런 내용을 SCAP에 알린 것은 전쟁 국가의 문화재 반출로 야기되는 정치적 문제를 우려한 사전 조치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그리핑의 제안을 ‘호의’라고 강조하며, 김재원을 한국 정부의 관리자로서 파견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1951년 3월 30일자로 호놀룰루미술관에 신속히 회신했다.⁴⁷

그런데 실제 그리핑은 한국문화재를 반입할 수 있

38 Telegram from Department of State to Amembassy, Pusan, Jan. 13, 1951. (『한국박물관 100년사, 자료편』, p.543.)

39 Telegram from Pusan to Secretary of State, Feb. 3, 1951. (『한국박물관 100년사, 자료편』, p.542.)

40 Telegram from Department of State to Amembassy, Pusan, Feb. 9, 1951. (『한국박물관 100년사, 자료편』, p.543.)

41 〈List of Evacuated Articles〉 1951.2.(국가기록원, BA0806526)

42 덕수궁미술관 소장품의 영어 목록집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1950년 10월 18일자 워너에게 보낸 편지 속에는 국립박물관과 덕수궁미술관 소장품을 미국으로 이전해 달라고 내용으로 볼 때, 덕수궁미술관 소장품의 반출 목록도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43 Telegram from Embassy, Pusan to Secretary of State, Feb. 28, 1951. (『한국박물관 100년사, 자료편』, p.545.)

44 그리핑(Robert P. Griffing Jr.)은 한국 회화와 도자기에 관심이 많은 동아시아미술 전문가이다. 하와이 호놀룰루미술관의 관장으로 1948년부터 김재원과 친분을 유지했다.

45 Letter from Honolulu Academy of Arts to William Stokes, US Political Adviser, SCAP, Mar. 5, 1951. (『한국 박물관 100년사, 자료편』, p.541.)

46 Charles B. Fahs' Diary, Honolulu, June 1, 1952.(RF_RG1.2_F26)

47 Letter from Honolulu Academy of Arts to Minster of Foreign Affairs, Republic of Korea April 12, 1951.(국가기록원, BA0806538)

는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리핑이 한국 외무부에 보낸 4월 12일자 편지를 보면, 그리핑은 김재원 채용의 도덕성 문제, 문화재 운송수단과 보험가입비 확보 등 해결과제가 많았다. 먼저 김재원의 특별채용은 자칫 한국 문화재 보관 취지를 흐릴 수 있는 사안이었다. 전쟁 중에 국립박물관장이 국가 문화재 전체를 가지고 국외로 나가는 것이 국민에게 어떤 충격을 줄지 너무나도 자명했다. 그렇기에 김재원도 호놀룰루미술관에서 급여를 받아 가족과 함께 하와이로 가는 것이 과연 옳은지를 고민했다.⁴⁸ 이 문제는 한국 정부가 김재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쉽게 해결되었다.

하지만 나머지 두 가지 문제는 그렇지 않았다. 피난 문화재의 운송은 미해군에 협조를 요청하겠다는 계획만 있었을 뿐 실제 협의되지 않았고, 보험가입비 확보는 더욱 어려운 문제였다. 그래서 그리핑은 외무부에 한국 문화재의 가치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어 보험을 받아줄 보험사가 없다며 한국 문화재의 무보험 운송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⁴⁹ 그리핑의 논리가 실제로 한국 정부에 수용되었고, 국립박물관이 1951년 12월에 작성한 〈약정안〉 제4조에 ‘문화재의 가치 평가가 곤란한 고액이므로 보험가입이 불가능하여 무보험으로 운송’이라는 조항이 들어갔다.⁵⁰ 이처럼 그리핑은 한국문화재의 호놀룰루로 이송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었지만, 한국 문화재를 반입하기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나섰다.

2. 정부의 문화재 반출 준비

준비되지 않은 그리핑의 실제 여건과 달리, 한국

정부는 1951년 3월 30일에 그리핑 제안을 공식적으로 수용하며 호놀룰루로 반출을 서둘렀다. 4월 20일에 이승만 대통령은 손원일 제독에게 ‘국보를 하와이로 보낼 준비가 다 되었는데 왜 아직 못 보내는가’라며 조속히 보내라고 채근까지 했다.⁵¹ 문화재 반출 문제는 대통령의 주요 관심 사안이 되었다.

호놀룰루로 반출 논의가 긴박하게 진행되던 시점에 문화재의 추가 피난이 있었다. 서울이 재탈환된 1951년 3월 말경에 국립박물관 최순우는 서역 벽화와 남산분관 소장품을, 덕수궁미술관장 이규필은 덕수궁미술관 소장품을 각각 포장하여 중국군의 1차 춘계공세를 피해서 약 4주 만에 부산으로 돌아왔다.⁵² 이것이 국립박물관 소장품의 3차 피난이다. 이어 5월 중순 중국군 2차 춘계공세 직전에 국립박물관 직원들이 다시 서울에 들어가서 박물관 도서 자료 등을 부산으로 옮기면서 4차 피난이 이뤄졌다.⁵³ 이렇게 3~4차 피난으로 총 4,005점의 소장품이 부산으로 이전되고, 중국군 참전으로 시작된 국립박물관 소장품의 부산 피난이 마무리되었다.

4차 부산 피난 이후, 국립박물관은 피난 문화재의 국외 이송을 위한 특별포장작업에 집중했다. 1951년 6월, 문교부는 대통령의 지시를 근거로 문화재 포장비 3600여만원 확보에 나서며 문화재 국외반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⁵⁴ 포장작업은 예산 배정부부터 예산 규모, 공사 업자 선정까지 일련의 모든 과정을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주요 사안이었다.⁵⁵ 그래서 1951년 8월 3일 국무회의에서 문교부가 요구한 포장비가 삭감되자 이승만 대통령은 결재를 중단하고 ‘예산액에 구애

48 Letter from Langdon Warner to Eugene I. Knez, USIS State Department, April 14, 1951.(김리나, 2014, 앞의 논문, pp.188~189.)

49 Letter from Robert P. Griffing to Eugene I. Knez, USIS State Department, April 12, 1951.(김리나, 앞의 논문, p.191.)

50 국립박물관, 〈한국정부와 호놀룰루예술원과의 한국문화재 임시보관에 관한 약정안 제출의 건〉 1951.12.18.(국가기록원, BA0806539)

51 윤경호 외, 2014, 『대한민국 건군의 주역 손원일 제독』, 해군사관학교, pp.186~226.

52 김재원, 1991, 『경복궁야화』, 탐구당, p.73.

53 〈4-5차 소개 상황보고〉 1951.6.22.(국가기록원, BA0806526)

54 〈소개국보 등 귀중문화재 특별 포장費 예산요구에 관한 건〉 1951.6.15.(국가기록원, BA0806538)

55 〈疏開國寶等 貴重文化財 在包裝에 關한 件〉 1951.11.8.(국가기록원, BA0806539)



받지 말고 완전 포장을 할 수 있는 실제 금액으로 입찰'을 지시하기도 했다.⁵⁶

1951년 12월 12일 포장 작업이 완료되면서 하와이로 출발 준비를 마쳤다.⁵⁷ 그리고 국립박물관과 덕수궁미술관 소장품의 소개목록 즉 호놀룰루 반출 문화재 목록집 50부도 제작되었다. 반출 규모는 실로 엄청났다. 국립박물관 소장품이 256상자 10,021점, 여기에 덕수궁미술관 소장품 174상자 8,862점이 더해져 총 18,883점에 이르렀다. 이 방대한 수량의 문화재는 상자 외면에 국립박물관은 'N' 그리고 덕수궁미술관은 'D'로 각인된 430상자에 담긴 채 하와이로 이송을 앞뒀다.⁵⁸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재 전량이 국외로 반출되는 상황이었다. 미국 본토 이송을 위해 1951년 2월에 작성된 〈List of Evacuated Articles〉에는 1~2차 피난 문화재 총 2,962점이었다. 그런데 호놀룰루 반출에는 1951년 봄의 3~4차 피난 그리고 경주분관 소장품 등이 합쳐지면서 그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다. 게다가 1951년 초 미국 본토로 반출 준비 때에 포함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덕수궁미술관 소장품도 호놀룰루 반출에는 포함되었다.⁵⁹

포장 작업이 1951년 12월에 완료되었고, 국립박물관이 〈한국정부와 호놀룰루예술원과의 한국문화재 임시보관에 관한 약정안〉을 문교부에 제출하자, 문교부는 피난 문화재의 호놀룰루 소개를 국무회의에 부의하려고 준비했다.⁶⁰ 그리고 외무부에게는 문화재 특별포장 완료 상황을 그리핑에게 통보해 줄 것과 김재원이

가족 동반하여 문화재와 함께 하와이로 출국할 수 있도록 조속한 여권 발급을 당부했다.⁶¹ 그리핑의 제안 이후 이승만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여 관련 부처는 호놀룰루로 피난 문화재 반출을 위해 다급히 움직였다. 국립박물관에게 1951년은 피난 문화재의 호놀룰루 반출을 준비하는 한 해였다고 할 수 있다.

3. 문화재 반출계획의 담보상태

1952년 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문화재 반출은 바로 실행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1952년 들어서 갑자기 담보상태에 들어갔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그리핑이 한국 문화재 운송과 보관에 필요한 재원을 제때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951년 12월에도 워너는 한국 문화재의 호놀룰루 보관은 미국 연구자에 좋은 기회가 됨을 강조하며 록펠러재단의 관심을 촉구했다.⁶² 뉴욕대의 알프레도 살모니⁶³ 교수도 1951년 12월에 파스에게 한국 문화재 호놀룰루미술관으로 이송에 록펠러재단의 지원 가능성을 물었다.⁶⁴ 즉 1951년 12월에 한국은 반출 준비가 완료되었지만, 그리핑은 여전히 준비되지 못했다.

그런데 1952년 들어서는 한국 정부와 그리핑의 입장이 바뀌었다. 그리핑은 1952년 1월에는 미 해군의 지원을 받아 문화재 이송을 위해 함정을 부산에 3차례나 보냈다. 그런데 이때는 한국의 정치 상황으로 인해 문화재 반출이 실행되지 않았다.⁶⁵ 왜냐하면 1952년 8월에 임

56 〈秘 疏開國寶 등 貴重品 再包裝 實施에 관한 건〉 1951.8.23. (국가기록원, BA0806538)

57 〈진열품포장완료보고의 건〉 1951.12.13. (국가기록원, BA0806538)

58 호놀룰루로 이송을 위해 1951년 하반기에 포장된 문화재의 상당수는 1974년 10월에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돌아와서야 해포되었다.

59 〈疏開國寶等 貴重文化財 在包裝에 관한 건〉 1951.11.5.(국가기록원, BA0806538)

60 〈韓國政府와 호놀룰루 藝術院과의 韓國文化財 臨時保管에 관한 約定案〉 1951.12.18.; 〈國寶等 貴重文化財 外國疏開에 관한 건〉 1951.12.19.; 〈국보등 귀중 문화재 외국 소개에 관한 국무회의의 부의안 프린트 의회의 건〉 1951.12.29. (국가기록원, BA0806539)

61 〈국보비밀보존에 관한 건〉 1951.12.19.(국가기록원, BA0806539)

62 John Marshall's Interview with Langdon Warner, Dec. 14, 1951.(RF_RG1.2_F26)

63 알프레도 살모니(Alfred Salmony, 1890~1958)는 독일 출신의 뉴욕대 교수로, 1950년 6월에 미 국무부의 교환교수프로그램으로 한국에 왔다.

64 Charles B. Fahs' Interview with Alfred Salmony, Dec. 20, 1951.(RF_RG1.2_F26)

65 Letter from Robert Griffing to Charles B. Fahs, May 14, 1952. (RF_RG1.2_F26)

기 만료를 앞둔 이승만 대통령이 자신의 정권 연장에 여념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재선을 위해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안을 1951년 11월 국회에 제출했으나 1952년 1월에 부결되었다. 그러자 이승만 대통령은 2월에 국회의원의 '소환 담화'로 국회를 압박하고, 5월에는 군대까지 동원해 개헌을 단행하려고 했다.⁶⁶ 전쟁 중 임시수도에서 발생한 이른바 '부산정치파동'으로 한국 정치는 혼돈의 시간을 겪고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호놀룰루로 문화재 반출에 신경을 쓸 상황이 아니었다.

하지만 반출 문제는 이승만 대통령의 재선 확정 이후로 미뤄진 것에 불과했다. 1952년 4월 백낙준은 호놀룰루 소개 계획이 이승만 대통령의 관심 영역으로서 여전히 존재함을 파스에게 전하며 록펠러재단의 지원을 요청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김재원에게 반출 준비 지시를 계속 하고 있었다.⁶⁷ 그래서 김재원은 이승만 대통령의 재선 즉시 호놀룰루로 반출 문제가 국회에 제출될 것을 알고 있었고, 이 사실을 그리핑에게도 미리 알렸다.⁶⁸

IV. 호놀룰루미술관으로 반출을 위한 국회동의요청

1. 국회동의요청의 배경

1952년 7월, 발췌개헌 통과 이후 문화재의 호놀룰루로 반출 문제가 다시 제기되었다. 그 시작은 문화재 국외 반출에 대한 국회동의요청이다. 문화재 국외 반출에 대한 국회동의를 법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었다.⁶⁹

게다가 당시는 '부산정치파동'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기로, 피난 문화재 전량을 하와이로 보내기 위한 국회 동의를 쉽지 않음은 너무나도 자명했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국회로 가져간 것은 국회의 동의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재 국외 반출에 대한 국민적 반대 여론은 국회동의요청안이 제출되기 전부터 뜨거웠다. 1951년 하반기부터 문화재의 국외 반출에 대한 소문이 있었다.⁷⁰ 1952년 2월에는 국립박물관과 덕수궁미술관의 주요 소장품이 1월 25일에 모 외국의 선박에 실려 나가려다 연기되었고, 신라 금관이 분실되었다는 소문도 돌았다.⁷¹ 게다가 경주분관 소장품의 미국 소개 사실이 미국의 잡지와 신문에 실리면서 우연히 국내에 알려졌고, 게다가 국외 소개라는 점에서 국민이 느끼는 공분은 매우 컸다.⁷² 문화계 인사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상당히 격앙된 어조로 정부에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그러나 문교부는 관련 소문에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았고, 1달 반이나 지난 1952년 3월 중순에서야 신라 금관의 미국 소개를 공식적으로 밝혔다.⁷³ 이에 국회는 미국에 소개된 경주분관 소장품에 대한 조치도 없는데 정부가 또 주요 문화재 전량을 호놀룰루미술관으로 보내려고 이미 약정서 초안까지 만들었다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⁷⁴ 문화재 반출에 반대하는 여론은 비등했고, 정부는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정부는 국회에서 격론이 예견되나 문화재 반출의 당위성 혹은 정당성을 얻는 절차로써 국회 동의 과정이 필요했다.

66 이완범, 2007, 「한국 정권교체의 국제정치 -1950년대 전반기 미국의 이승만 제거계획」, 『세계정치 8』 28(2), pp.133~144.

67 Charles B. Fahs'Interview with Dr. George Paik, Pusan, Korea, April 9, 1952.(RF_RG1.2_F26)

68 Letter from Robert Griffing' to Charles B. Fahs, Sept 15, 1952.(RF_RG1.2_F26)

69 <개회식 대통령 치사> 1952.10.15.(국회입사회의 속기록 제14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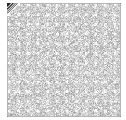
70 <국보미술품 국외반출 전람에 관한 동의안> 1953.5.30.(국회정기회의 속기록 제15회 제77호)

71 「民族遺産에赤信號?」, 『경향신문』 1952.2.04.

72 <문화재 국외전시 동의안>, 1955.4.22. (제20회 국회정기회의 속기록 제33호)

73 「國寶는保管中」, 『경향신문』, 1952.3.17.

74 <박물관 소장 국보 해외반출의 건> 1952.3.27.(제2대 국회 제12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정부가 국회에 동의를 구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배경은 미 국무부의 압력이다. 한국의 박물관에 대한 정보 수집을 한 SCAP의 뉴젠트(Donald M. Nugent)의 1951년 12월 보고서에 이 부분이 확인된다. 뉴젠트는 한국 정부가 호놀룰루미술관에 '대여형식'으로 한국 문화재를 보내려는 것은 적절한 조치가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미국이 '문화재 약탈자'로 비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리고 호놀룰루 반출을 위해서는 국회 승인을 얻어야 하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화재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안전한 보관처를 물색해야 한다고 보고했다.⁷⁵ 이외 여러 문서에서도 미 국무부는 호놀룰루로의 반출에 반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승만 대통령도 한국 국회의 동의 없이 문화재를 국외로 반출하는 것에 미 국무부가 부담을 느껴 반출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⁷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입장에서는 호놀룰루로의 문화재 반출이 '미 국무부의 반대를 물리치고'⁷⁷ 해야 하는 사안이었다. 미 국무부는 공산진영의 비난을 우려하여 전쟁 중에 한국 문화재를 미국으로 반입하는 것을 반대했고, 더욱이 국회의 동의 없는 국외 반출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정부가 미 국무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동의를 얻어야 했다.

2. 호놀룰루미술관 보관전람을 위한 제1차 국회동의요청(1952.7.~1953.5.)

1952년 7월 발췌개헌 통과로 정권 연장이 확실해지자, 이승만 대통령은 피난 문화재 전량을 호놀룰루로 반출하기 위한 국회동의요청 준비를 문교부에 지시했다.⁷⁸ 지시문서에는 호놀룰루로 반출목적, 그간 협의

내용과 지체 사유 그리고 향후 조치 방향이 간략히 담겨 있다. 반출목적은 '전쟁 중 문화재의 안전을 위한 호놀룰루미술관에서의 임시 보관'이다. 이 문서는 당초 호놀룰루로 반출의 목적이 소개(疏開)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반출을 위해서는 미 국무부의 허가가 필요했고, 그 선결과제가 국회 동의였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문교부는 1952년 8월 4일에 국립박물관과 덕수궁미술관의 피난 문화재 18,883점 전량을 호놀룰루미술관으로 보내어 임시보관하겠다는 국외 반출 계획을 국무회의에 부의했다. 별다른 이견 없이 '상당한 보험료를 부(附)하여 군함 등으로 엄중 호송'이라는 조건이 추가되었고,⁷⁹ '국보 소개에 관한 미 국무부의 반대를 물리치고 강력히 추진시켜야 할 것이며 국회의 동의도 조속히 얻어야 할 것이다'라고 적극적인 추진을 의결했다.⁸⁰ 이 안건이 1952년 9월 30일에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된 제1차 <국보미술품국외반출 전람에 대한 국회의 동의요청에 관한 건>이다.

제1차 국회동의요청안 심사는 난항의 연속이었다. 무엇보다도 국회동의요청안 자체가 부실했다. 약정서와 반출 문화재 목록도 없이, 국외반출의 목적과 9개항의 반출보관 제조조건으로 구성된 간략한 <국보미술품국외반출전람요항>만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1952년 10월 말에 <대한민국정부와 호놀룰루미술관과의 한국 문화재 임시반출에 관한 약정서(안)>을 국회에 제출했다.⁸¹ 그런데 이 약정서(안)은 호놀룰루미술관과 협의로 작성된 것도 아니고, 법제처 검토도 거치지 않은 국립박물관의 초안에 불과했다.

75 Information in Regard to Request of Rockefeller Foundation Dec. 27, 1951.(RF_RG1.2_F25)

76 <국보미술품 국외반출전람에 관한 건> 1952.7.17.(국가기록원, BA0135123)

77 <국무회의의 제출 안건 처리 현황 통지의 건> 1952.9.23.(국가기록원, BA0806540)

78 <국보미술품 국외반출전람에 관한 건> 1952.7.17.(국가기록원, BA0135123)

79 <국무회의의 제출안건 처리상황통지의 건> 1952.8.21.(국가기록원, BA0806540)

80 <국무회의의 제출안건 처리상황통지의 건> 1952.9.23.(국가기록원, BA0806540)

81 <국보미술품 국외반출전람에 대한 약정초안 송부의 건> 1952.10.30.(국가기록원, BA0806540)

12월 23일에 개최된 국회의 중간보고회는 찬반 양론이 팽팽한 격론의 장이었다.⁸² 먼저 찬성하는 의원들은 부산 보관 창고의 열악한 환경과 한반도 주변 정세 불안을 이유로 차라리 국외 안전지대로 소개하고 종전 후 반입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반출을 반대하는 의원들 특히 문교위원장 대리 정재완 의원은 1952년 2월 국정감사에서 발각된 경주분관 미국 소개품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아직도 없는데, 또 새롭게 18,883점의 문화재를 반출하려는 계획 자체를 비판했다. 무엇보다도 반출목적이 전시인지 소개인지 알 수 없는 모호성을 지적했다. 더욱이 미 국무부가 미국 내 전시를 반대하는데 ‘기어코’ 추진하려는 의도를 물었다. 이러한 격론 끝에 1952년 12월 24일 국회는 경주분관 소개품의 조치를 비롯하여 미흡한 자료를 보완한 후 재심의하기로 하였다.⁸³

이듬해 1953년 2월 6일, 문교부는 법제처 검토를 거친 <대한민국정부와 호놀룰루미술관과의 한국문화재 보관전람에 관한 약정서(초안)>⁸⁴ 등 보완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며 재심의를 요청했다.⁸⁵ 그래서 국민의 신뢰 회복 방안 확보를 조건으로 1953년 5월 7일에 겨우 문교위원회를 통과했다. 그 사이에 문교부와 문교위원회가 수차례에 걸쳐 회의를 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신익희 국회의장에게 조속한 통과를 별도로 당부하는 등⁸⁶ 제1차 국회동의요청안은 문교위원회를 통과하는데도 순탄하지 않았다. 국회와 여론의 반대 기류가 여전히 강

했지만 문교부는 국외반출에 대한 기존방침을 고수했다. 이에 문화계 등 각계의 반발은 더욱 커졌다.⁸⁷

제1차 국회동의요청안은 1953년 5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날카롭게 맞섰다. 문교부 장관은 문화재 전시가 국제문화교류라는 점을 강조하며 승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반대하는 의원들은 소개(疏開)인지 전시인지 알 수 없고, 특히 홍보를 위한 전시에 국가의 주요 문화재 전량을 반출하려는 의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사립미술관의 약정체결은 국가 위신에 맞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⁸⁸ 일부 의원은 문화재 반출을 ‘국보파동’이라 규정하고 정부를 맹비난하였다.⁸⁹ 또한 휴전회담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문화재의 국외 반출은 국제적으로도 의심을 사는 행위라고 정부의 주장을 반박했다.⁹⁰ 격론 끝에 제1차 국회동의요청안은 결국 부결되었다. 반출목적이 계속 바뀌고, 전쟁 중에 주요 문화재 전량이 하와이의 사립미술관으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의구심을 정부가 해소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3. 호놀룰루미술관 주도의 순회전시를 위한

제2차 국회동의요청(1953.6.~1953.12.)

문화재 국외 반출 계획은 제2대 국회의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자마자 재개되었다. 1953년 6월 12일, 제1차 국회동의요청안이 부결된 지 불과 열흘 만에 정부는 제2차 국회동의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⁹¹

82 <국보 미술품 국외 반출 전람에 관한 동의안 심사 중간보고> 1952.12.23.(국회정기회의 속기록 제2대 15회 2차)

83 <국보미술품국외반출전람에 관한 건> 1952.12.24.(국가기록원, BA070220)

84 <국보미술품 국외반출전람에 관한 약정서 심의의뢰의 건> 1953.1.10.(국가기록원, BA0806540)

85 <국보미술품 국외반출전람에 관한 건> 1953.2.6.(국가기록원, BA0170220)

86 「選舉法案早速通過等」, 『동아일보』, 1953.4.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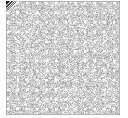
87 「정부의 문화재 해외 반출 전시계획에 대해 문화계 반발 확산」, 『서울신문』, 1953.1.13.

88 <국보미술품 국외반출 전람에 관한 동의안> 1953.5.30.(국회정기회의 속기록 제15회 제77호)

89 「기자석」, 『경향신문』, 1953.6.01.

90 「國寶搬出同意案 卅日國會서否決」, 『조선일보』, 1953.6.01.

91 <文化材海外展示에 관한國會同意要請에 관한 건> 1953.6.12.(국가기록원, BA0170220)



제2차 국회동의요청안의 핵심적 변화는 반출 목적에서 소개 혹은 보관개념이 사라졌고, 반출 수량이 대폭 축소되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문서 제목이 <문화재해외전시에 관한 국회동의요청에 관한 건>으로 변경되었다. 반출목적은 한국문화 국외 소개(紹介)를 위해 호놀룰루미술관이 주도하는 미국 내 순회전시로 완전히 바뀌었다. 약정서의 명칭도 <대한민국 국립박물관과 호놀룰루미술관과의 한국문화재전시에 관한 약정서(안)>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반출 수량도 403점을 선별하되 3차에 걸쳐서 나누어 순차적으로 실시하는데, 1차 반출을 1953년 내로 계획했다. 문화재국외전시위원회 설치, 반출 문화재에 대해서는 과학적 검증 등 1차 동의안에 없던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제2차 국회동의요청안도 내용면에서 매우 미흡했다. 반출 수량이 403점으로 축소되었으나, 어떤 기준으로 어떤 문화재를 선정했는지 알 수 없으며 반출 문화재의 세부 목록도 없었다. 3차례에 걸친 순차 반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 그리고 문화재국외전시위원회 명부도 없었다. 정부가 제2차 국회동의요청안을 매우 급하게 작성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국민적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일부분을 보완했으나 여론은 여전히 부정적이었다.⁹² 제2차 국회동의요청안은 1953년 12월 1일 문교위원회를 간신히 통과했으나,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1953년 12월 19일 자동 부결되었다.

제2차 국회동의요청안이 제1차와 크게 다른 점은 선별한 소량의 문화재로 미국 순회전시를 계획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 순회전시를 주도하는 주체가 한국 국립박물관이 아닌 호놀룰루미술관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제2차 국회동의요청안도 호놀룰루미술관으로 반출이 핵심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4. 호놀룰루미술관장 그리핑의 역할을 강조한

제3차 국회동의요청(1954.6.~1955.4.)

1954년 '5.20 총선거'로 선출된 제3대 국회는 친정부 인사로 구성되었다.⁹³ 그래서 1954년 6월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문교부는 '신 국회에서는 기필코 이를 통과 시키고저'라는 결연한 의지로 문화재 국외반출을 위한 제3차 국회동의요청안을 제출했다.⁹⁴ 제3차의 내용은 제2차 국회동의요청안과 거의 동일하다. 다만 한국 문화재 미국전시의 필요성과 시급성, 시작 경위 그리고 호놀룰루미술관장 그리핑 주도도 한 미국 순회전시의 배경과 당위성을 강조하는 '문화재 해외전시에 관한 경위와 필요성'이 특별히 추가되었다.

이 부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외 전시 준비는 전쟁 이후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정부수립 전후부터 문화외교를 위해 기획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호놀룰루에서 순회전시를 시작하는 것은 해외동포가 많고 독립운동의 중심지였으며, 또한 미국으로 가는 길목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그래서 한국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고, 한국 문화재 전시에 상당한 관심이 있는 호놀룰루미술관장인 그리핑에게 맡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문화재 반출목적이 '소개(疏開)'가 아니라는 점과 순회전시를 호놀룰루미술관장 그리핑이 주도해야 하는 이유가 제3차 국회동의요청안의 핵심이다.

제3차 국회동의요청은 이전과 달리 문교위원회 통과까지 빠르게 진행되었다. 심의 전부터 국외 반출에 대한 반대 여론을 환기하는 사전 작업을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문화계 주요 인사에게 의견을 듣는 공청회 자리를 마련하고, 일부 언론은 국외 전시가 문화 선전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기사를 냈다.⁹⁵ 문교부는 소개(疏開)라는 의심에서 벗어나기 위해 문화재

92 「壇上壇下」, 『동아일보』, 1953.7.15.

93 정재현, 2013. 『1954년 개헌문제와 자유당의 갈등』,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4 <문화재 국외 전시에 대한 국회 동의 요청에 관한 건> 1954.6.17.(국가기록원, BA0135186)

95 「文化財海外展示」, 『조선일보』, 1954.08.14.; 「國寶海外展示 公聽會서贊成氣勢」, 『경향신문』, 1954.08.14.; 「文化財海外展示」, 『조선일보』, 1954.09.20.; 「文化財의海外展示의意義」, 『조선일보』, 1954.9.24.

국외전시위원회를 개최하여 민간 소장품도 국외 반출 대상에 포함되고, 반출 수량도 더 축소하였다.⁹⁶ 이런 노력으로 정부에 우호적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므로 제3차 국회동의요청안의 본회의 통과는 다소 낙관적이었다.

하지만 1954년 11월 사사오입 개헌 가결 이후 정부를 비판하는 여론이 다시 비등해졌다. 그래서 소규모 반출이지만 무리해서 국외 전시를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반대 여론이 거세졌다.⁹⁷ 게다가 1954년 12월 발생한 부산 용두산 대화재로 어진과 어필 등 구황실재산사무총국 소장의 피난 문화재가 대량 소실되면서 문화재 관리에 소홀한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져가던 상황이었다.⁹⁸ 제3차 국회동의요청안은 1954년 12월 1일에 심의 예정이었으나,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했다.⁹⁹ 그래서 1955년 9월 미국전시를 목표했던 제3차 국회동의요청안은 1955년 1월부터 다시 답보상태가 되었다.

1955년 4월 7일, 갑자기 문교위원회가 제3차 국회동의요청안의 심의를 서둘렀다. 4월 19일 본회의에 ‘기필코’ 상정되도록 해달라고 국회운영위원회에 요청하며 심의가 재개되었다.¹⁰⁰ 그 배경은 2가지로 추정된다. 하나는 그동안 한국 문화재 국외 반출을 반대하던 미 국무부가 한국문화재 국외 전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했기 때문이다.¹⁰¹ 미 국무부의 아델리아 홀¹⁰²이 1954년 10월에 방한하여 문교부와 예비적 협의를 했고,¹⁰³ 1955년 4월에 한국문화재의 미국전시 관련 보고서를 미 국무부에 제출했다.¹⁰⁴ 국회와 여론에 밀려 답보상태였던 문화재 국외반출 문제는 미 국무부가 기존입장에서 선회하자 급하게 다시 추진되었다.

제3차 ‘문화재의 해외전시에 관한 동의안’이 1955년 4월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¹⁰⁵ 대체토론까지 장장 4일에 걸쳐 심의가 진행되었다.¹⁰⁶ 여당의원들은 민족문화의 세계 선전이라는 정부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국제적 선전의 시급과 효용성에 찬동하였다. 그렇지만 국외반출을 찬성하는 여당과 정부도 국민의 의구심을 잘 알고 있었다. 문교위원장 김법린은 방대한 수량의 문화재 반출이었기에 전시가 아닌 소개라고 오해되었고, 이것이 국민들에게 불안감, 공허감,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을 인정했다.

야당 반대의 핵심은 정부의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점이다. 제2대 국회에서 두 번이나 부결되었고, 한국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 동일 사안을 제3대 국회에 다시 제출한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동의안이 제출될 때마다 소개, 소개 겸 전시 그리고 순회전시로 반출목적이 계속 달라진 점을 질타했다. 국가의

96 「海外展示文化財小委員會를開催」, 『조선일보』, 1954.11.20.

97 「國寶를海外에搬出말라」, 『동아일보』, 1954.12.04.

98 「재로화한 國寶」, 『경향신문』, 1955.01.06.

99 「壇上壇下」, 『동아일보』, 1954.12.02.

100 〈문화재해외전시에관한동의안상정요청에관한건〉 1955.04.07.(국회기록보존소 국회기록물)

101 Letter from Department of State Instruction to The American Embassy, Seoul, April 13, 1955.(Internal_economic,_industrial_and_social_affairs__fine_arts_1, 국회전자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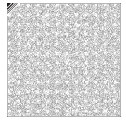
102 아델리아 홀(Ardelia R. Hall, 1899~1979)은 아시아미술을 전공했고, 제2차 대전 당시 문화재 보호를 위해 결정성된 기념물, 미술품, 기록물 전담반(영어: Monuments, Fine Arts, and Archives program, MFAA), 일명 모뉴먼트 맨(Monuments Men)으로 활동했다. 1946년부터 1964년까지는 미 국무부 국제정보문화국(Office of International Information and Cultural Affairs)에서 미술 및 기념물 고문으로 근무했다.

103 〈문화재 국외전시 동의안〉 1955.04.22.(제20회 국회정기회의 속기록 제33호)

104 Letter from Evelyn McCune to Charles B. Fahs, March 15, 1955.; "General Report of Mission to Korea by the Arts and Monuments Adviser of the Department of State," April 12, 1955.

105 〈문화재 국외전시에 관한 동의안〉1955.4.21.(제3대 국회 제20회 제32차 국회 본회의)

106 제3차 국회동의요청안이 1955년 4월 21일, 22일, 23일, 25일 연속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되었다.



중대 사업이 일관성도 없고, ‘꼭 내보내야겠다’는 의지로만 보이는 점을 힐난했다. 국민에게 보여주지 않은 채 무리하게 국외전시를 강행하는 정부의 태도는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나흘에 걸친 질의와 대체토론을 거치고 표결단계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표결 자체를 반대했다. 야당 의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려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외 많은 야당 의원들은 제3차 국회동의요청안은 철회 아니면 보류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외쳤으나, 1955년 4월 25일에 가결되었다.

그런데 제3차 국회동의요청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1차부터 3차까지 국회동의요청은 피난 문화재를 호놀룰루미술관으로 반출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호놀룰루로 반출은 물론이고 그리핑 주도의 미국 순회전시 계획이 완전히 사라졌다. 이때부터 피난 문화재의 반출 문제는 미 국무부가 주도하는 한국 문화재의 미국 순회전시 계획으로 전환되었다.¹⁰⁷ 그러자 1951년 3월부터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온 호놀룰루미술관장 그리핑은 매우 낙담했고, 미 국무부 담당자인 홀에게 호놀룰루미술관을 순회전시 개최지에 포함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단순히 희망을 말한 것이 아니라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이승만 대통령에게 직접 항의할 뜻을 내비칠 정도였다.¹⁰⁸

사실 한국 문화재의 미국전시에 대해 1954년부터 한국 정부와 미 국무부 간에 협의가 있었다.¹⁰⁹ 1953년 이후 미국의 정치적 지형과 한반도의 정세가 바뀌면서, 국외반출을 반대하던 미 국무부의 입장에도 변

화가 생긴 것이다. 1953년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된 이후 미국은 기존의 노골적인 반공 프로파간다 대신에 문화와 예술의 가치를 강조하는 문화외교를 중시하는 쪽으로 선전의 방향을 바꾸었다.¹¹⁰

이 기조에 따라서 미 국무부는 문화재 반출을 반대하던 기존 입장을 버리고, 홀을 1954년 10월 한국에 파견하여 한국 문화재의 미국전시 가능성을 검토하게 했다.¹¹¹ 이때부터 한국 문화재 미국전시는 미 국무부의 사업이 되었다. 다만 1955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진행한 것은 문화재 반출에 관한 한국 국회의 동의여부를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화재 반출 문제가 국회를 통과하자, 홀이 순회전시를 위한 실질적 협의에 나섰다. 이때부터 순회전시는 이전에 그리핑이 준비하던 미국 순회전시와 전혀 상관없는 미 국무부의 새로운 프로젝트로서 추진되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1957년 워싱턴을 시작으로 순회전시 ‘한국국보전’이 개최되었다.

V. 피난 문화재의 국외반출 성격 변화 과정

1950년 국립박물관 소장품의 피난은 긴급대피로 시작되어 1957년 미국 순회전시인 ‘한국국보전’ 개최까지 계속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외반출을 둘러싼 논란은 뜨거웠고 그 중심에는 호놀룰루미술관이 있었다. 호놀룰루미술관이 등장하면서 국립박물관 문화재 피난의 성격은 계속 변경되어 갔다. 이 변화 과정과 특징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07 <GENERAL REPORT OF MISSION TO KOREA BY THE ARTS AND MONUMENTS ADVISER OF THE DEPARTMENT OF STATE> 1955.4.12. (Internal_1, 국회전자도서관)

108 Letter from Robert P. Griffing to Chewon Kim. July 20, 1955.(장상훈, 2019, 『김재원 국립박물관 초대 관장 영문 편지』, 국립중앙박물관, p.68.)

109 Charles B. Fahs' Interview with Vincent Bruno. April 14, 1954. (RF_RG1.2_F27)

110 기사 도시하코, 2012, 『문화생전과 아시아』, 소명출판사, p.71.; 김옥란, 2018, 『유치진과 미국, 드라마센터와 문화생전』, 『한국학연구』 51, pp.152~153.

111 Letter from Evelyn McCune to Charles B. Fahs, March 15, 1955.(정무정, 앞의 논문, p.22.)

먼저 전쟁 직후부터 1951년 초까지 국립박물관 소장품의 1단계 피난은 미국으로의 소개였다. 경주분관 소장품에 대한 소개가 단행되었을 때는 전 국토가 북한군에 장악되는 위기의 순간이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영토 내가 아닌 미국으로 소개였다. 그리고 1950년 12월 국립박물관의 부산 피난도 미국 소개를 위한 긴급 대피였다. 부산은 최종 피난지가 아니었고, 미국 반출을 위한 경유지였다. 주요 문화재를 부산으로 급하게 옮긴 것은 중국군의 참전으로 전세가 급변하면서 취해진 긴급조치였다. 일단 부산으로 피난했고, 그 직후인 1950년 12월부터 1951년 2월 사이에 미국 반출 논의가 물밑에서 상당히 진척되는 듯했다. 하지만 미국으로 반출되지 못하고 부산에 남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부산은 국립박물관 소장품의 최종 소개지가 되었다.

이후 1951년 3월부터 1953년 5월까지 2단계 특징은 반출목적이 소개에서 전시로 계속 전환되어 갔다는 점이다. 그러나 변하지 않은 핵심 내용은 피난 문화재 18,883점 전량을 호놀룰루미술관으로 반출한다는 계획이다. 1951년 3월 호놀룰루미술관장 그리핑이 등장하면서 피난 문화재의 국외 반출은 미국이 아닌 호놀룰루 미술관이라는 특정 장소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1951년 3월부터 연말까지 국외 반출의 성격은 명백히 소개였다. 국립박물관과 덕수궁미술관 피난 문화재 18,883점 전체를 포장하였고, 호놀룰루로 운송을 위해서 미 해군 함정이 부산에 3차례나 왔었다. 문제는 전쟁 중에 주요 문화재 전량을 국민도 모르게 국외 반출을 도모했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1952년 7월부터 시작된 제1차 국회동의 요청은 그동안 수면 아래에서 비공개로 진행되었던 국외 반출 문제가 공개화되었고, 반출목적도 소개에서 전시로 전환되는 시작점이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제1차 국회동의요청안도 처음에는 피난 문화재 전량의 호놀룰루미술관으로 소개였으나, 여론이 심상치 않자 전시 개념이 추가되고 강화되어 갔다.

국외 반출의 3단계는 제2차 국회동의요청부터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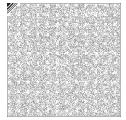
3차 국회동의요청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이다. 이때는 국외 반출목적이 완전히 전시로 바뀌었다. 다만 변하지 않은 것은 호놀룰루미술관장 그리핑이 여전히 사안의 중심에 있었다는 점이다.

제2차 국회동의요청안은 반출 수량을 대폭 축소하여 호놀룰루미술관에서 시작하는 미국 7개 도시의 순회전시로 바뀌었다. 하지만 이 또한 국민적 동의를 구하지는 못했다. 오히려 국회동의요청 과정에서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미 국무부는 공산진영의 '문화재 약탈자' 비난을 우려하여 한국 문화재의 미국 반입을 계속 반대했다. 그리고 국회와 국민의 반대 여론도 상당했지만, 한국 정부는 반출목적을 수정해 가며 호놀룰루미술관으로 반출을 계속 추진했다.

제3차 국회동의요청안은 호놀룰루로 반출 문제보다는 그리핑의 역할에 방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그리핑이 주도하는 미국 순회전시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그리핑의 입지를 공고히 해줬다. 이런 구도는

표 1 소개에서 전시로 반출 목적 변화 과정(밑줄은 필자의 편입)

생산 문서	문서 제목	약정서 제목
국립박물관 → 문교부장관 1951.12.18.	국보등 귀중문화재 외국소개에 관한 건	한국정부와 호놀룰루예술원과의 한국문화재 임시보관에 관한 약정안
대통령실 → 국무총리, 문교부장관, 법제처장 1952.7.17	국보미술품 국외반출전람에 관한 건	
제1차 국회동의요청안 (법제처 검토 전) 1952.12.30	국보미술품 국외반출전람에 대한 국회의 동의요청에 관한 건	대한민국정부와 호놀룰루미술관과의 한국문화재 임시반출보관에 관한 약정서(초안)
제1차 국회동의요청안 (법제처 검토 후) 1953.1.31.	국보미술품 국외반출전람에 대한 국회의 동의요청에 관한 건	대한민국정부와 호놀룰루미술관과의 한국문화재 보관전람에 관한 약정서(초안)
제2차 국회동의요청안 1953.6.12	문화재해외전시에 관한 국회동의요청에 관한 건	대한민국 국립박물관과 호놀룰루미술관과의 한국문화재 전시에 관한 약정서(안)
제3차 국회동의요청안 1954.6.17	문화재해외전시에 관한 국회동의요청에 관한 건	대한민국 국립박물관과 호놀룰루미술관과의 한국문화재 전시에 관한 약정서(안)



1954년 4월 그리핑이 급하게 방한하여 이승만 대통령을 접견한 결과로 추정된다.¹¹² 사실 그리핑은 1951년 3월 이후 계속 한국문화재의 호놀룰루 반입에 집착했다. 1952년 들어 반출 문제가 담보하자, 그리핑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문화재 전량 반출이 곤란하다면 일부라도 보내달라고 요청할 정도였다.¹¹³

1단계 국외반출의 성격이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개였다면, 호놀룰루미술관이 등장한 2단계부터 반출의 성격은 소개에서 전시로 변했다. 3단계에서는 호놀룰루미술관장 그리핑이 주도한 미국 순회전시라는 점이 더욱 명확해졌다. 특히 3차례에 걸친 국회동의요청은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과정이면서, 호놀룰루로 반출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 표현이었다. 국회와 시민 사회는 국외 반출의 취지와 목적, 반출 규모, 시기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했으나, 정부는 개의치 않고 즉각적으로 재차 그리고 삼차로 국회에 동의를 요청했다. 18,883점 문화재 전량을 호놀룰루로 반출하겠다는 제1차 국회동의요청안이 부

결된 지 10일 만에 정부는 반출계획을 수정하여 제2차 국회동의요청안을 제출하였다. 불과 10일 만에 반출의 목적이 완전히 바뀐 것이다. 정부는 전쟁 상황의 변화라고 해명했지만, 10일 만에 다시 제출해야 하는 긴박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 제3차 국회동의요청안은 그야말로 그리핑을 위한 내용이었다. 형식적으로는 미국 순회전시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리핑이 있는 호놀룰루미술관으로 반출하려는 이유에 대한 적극적 해명이었다. 정부의 반복적 국회동의요청은 호놀룰루로 반출 그 자체가 목적으로 보일 정도였다.

아이러니컬하게도, 1955년 4월에 제3차 국회동의요청안이 어렵게 국회를 통과한 이후 호놀룰루미술관장 그리핑이 주도하는 미국 순회전시 계획은 완전히 폐기되었다. 이때부터는 미 국무부가 주도하는 미국 순회전시로 새롭게 전개되었다. 이것이 국외 반출의 마지막 과정인 4단계이다. 4단계부터 피난 문화재의 국외 반출은 그리핑과 무관하게 미 국무부의 대한문화

표 2 피난 문화재의 국외 반출 성격 변화 과정

단계	반출 성격	시기	관련 사건	반출지	대상 문화재
1단계	소개	1950.7	6.25 전쟁 직후	미국 (샌프란시스코 은행)	경주보관 139점
	소개	1950.12	중국군 참전	부산 (미국행을 위한 피난)	국립박물관 2,962점 (1차 피난 2,088 + 2차피난 874점)
	소개	1950.12~1951.2	1.4 후퇴 후 정세 불안	미국	국립박물관 2,962점 + 덕수궁미술관 4,809점 (추정)
2단계	소개	1951.3~1952.6	미 국무부의 본토 반입 거부	호놀룰루미술관	부산 피난 18,883점 전량
	소개 ⇒ 보관+전시	1952.7.~1953.5	제1차 국회동의요청	호놀룰루미술관 + α (미국박물관 및 하버드 대학 박물관)	부산 피난 18,883점 전량
3단계	전시 (호놀룰루미술관 주도)	1953.6.~1953.12	제2차 국회동의요청	호놀룰루미술관 등 7개 도시	부산 피난 중 403점 선별
	전시 (호놀룰루미술관 주도)	1954.2.~1955.4	제3차 국회동의요청	호놀룰루미술관 등 7개 도시	부산 피난 중 306점 선별
4단계	전시 (미 국무부 주도)	1955.7.~1959.12	한국국보전	워싱턴 등 8개 도시 (호놀룰루미술관 포함)	국외전시위원회 선정 199점 (부산 피난 + 개인 소장)

112 「이 대통령을 예방-하와이博物館長 弎氏等 來韓」, 『조선일보』, 1954.04.04.

113 Letter from Honolulu Academy of Arts to Syngman Rhe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pril 4, 1952.(이학수, 2020, 「전시 군의 문화재 보호 사례」, 『6.25전쟁과 문화유산 보존』, 6.25전쟁 70주년 계기 학술심포지엄, 국립고궁박물관.)

정책 일환으로서 진행되었다. 그 결과가 1957년 워싱턴을 시작으로 미국의 8개 도시에서 개최된 ‘한국국보전’이다. 즉 전쟁의 참화에서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 시작된 국립박물관 소장품의 부산 피난은 호놀룰루미술관으로 반출 문제로 전환되었고 종국에는 미 국무부가 주도한 미국순회전시로 일단락되었다.

VI. 결론

1950년 12월 부산으로 긴급대피하면서 시작된 국립박물관 소장품의 피난은 1974년 10월에 대부분의 소개품이 서울로 복귀하면서 종료되었다. 영토 내 소개였지만,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피난은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국립박물관 문화재 피난은 1.4후퇴를 전후한 시점의 부산 피난에 국한하여 인식되고 있다. 사실 국립박물관의 부산 피난은 미국으로 가기 위한 경유지적 성격에 불과했다. 국립박물관 피난사의 대부분은 그 이후 전개된 호놀룰루로의 반출 계획이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최근까지 거의 이뤄지지 않아 국립박물관의 피난사는 축소되었고, 실체적 성격 규명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현재 알고 있는 국립박물관 부산 피난의 역사는 미국 본토 그리고 호놀룰루로 반출 계획이 실현되지 못하면서 생긴 결과론적 상황이다. 처음에는 전쟁의 참화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개였지만, 호놀룰루로 반출 계획이 수립되면서 국립박물관 문화재의 피난 성격은 모호해졌다. 미 국무부의 반대에도, 한국 국민과 국회의 격한 반대에도 정부는 호놀룰루로 반출 계획을 중단하지 않았다. 호놀룰루미술관으로 반출을 위한 3차례에 걸친 국회동의요청은 정부의 의지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호놀룰루미술관이 주도한 순회전시는 폐기되고, 미 국무부가 주도하는 미국 순회전시인 ‘한국국보전’으로 새롭게 전개되었다.

이렇듯 1950년 국립박물관의 부산 피난과 1957년 한국국보전 사이에는 호놀룰루로의 반출을 위한 복잡

다단했던 일련의 과정이 존재했다. 시간적으로도 1951년 3월부터 1955년 4월까지 약 4년에 걸쳐 진행되었다. 시간의 양이나 사회적 파장이거나 어느 면에서도 가볍지 않은 사안이다. 이것이 6.25 전쟁기 문화재 피난사의 핵심이다. 지금까지 국립박물관의 피난사는 위기의 순간에서 기적적인 부산 피난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알린 첫 국외 전시로서 ‘한국국보전’만이 강조되었다.

전쟁기 문화재 피난의 역사는 부산 피난으로 시작되었고, 그 중간에 호놀룰루로 반출을 위한 격동의 세월이 있었으나 미 국무부가 주도하는 미국 순회전시 개최로서 일련의 흐름이 일단락되었다. 즉 부산 피난, 호놀룰루로의 반출을 위한 국회동의요청 과정, 한국국보전 개최는 긴 시간 동안 여러 단계를 거쳐가면서 전개된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다. 그 사이에 뜨거운 논란이었던 호놀룰루로의 반출문제가 그동안 다루어지지 않았었다. 그래서 피난과 미국 순회전시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공백이 있었던 것처럼 보였고, 이 두 사건을 분리하여 별개 사안으로 인식되게 했다.



참고문헌

- 『경향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중앙선데이』.
-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서비스(<https://www.archives.go.kr/next/viewMain.do>).
- 국회기록보존소 국회기록물(<https://archives.nanet.go.kr/search/generalDocRecordList.do#none>).
- 국회전자도서관(https://dl.nanet.go.kr/search/searchInnerList.do?queryText=ardelia%3AALL_NI_TOC%3AAND&query=ardelia).
- 록펠러 아카이브 센터(Rockefeller Archive Center, <https://dimes.rockarch.org/>).

- 국립중앙박물관, 2019, 『6.25전쟁과 국립박물관』, p.36.
- 김리나, 2014, 『한국전쟁 시기 문화재 피난사』, 『미술자료』 86, pp.169~196.
- 김옥란, 2018, 『유치진과 미국, 드라마센터와 문화냉전』, 『한국학연구』 51.
- 김재원, 1973, 『여당수필집』, 탐구당, p.279.
- 김재원, 1991, 『경복궁야화』, 탐구당, p.73.
- 김재원, 1992, 『박물관과 한평생』, 탐구당, p.128.
- 김재원, 2005, 『東西를 넘나들며』, 탐구당, p.403.
- 김재원(김리나), 2019, 『세계인으로서 한국 문화를 알리다』, 『박물관에 살다 한국 박물관 100년의 사람들』, 동아일보사, pp.12~41.
- 김철수, 2017, 『그때는 전쟁, 지금은 휴전 6.25』, 플래닛미디어, p.125.
- 이광표, 2022, 『6·25 전쟁기 ‘문화재 해외 반출’ 논란의 의미와 성과』, 『한국학연구』 67, pp.603~641.
- 이상호, 2016, 『한국전쟁기 미국의 한국정부 해외 이전 계획』, 『군사』 101, pp.187~188.
- 이완범, 2007, 『한국 정권교체의 국제정치 -1950년대 전반기 미국의 이승만 제거계획』, 『세계정치』 8, 28(2), pp.133~144.
- 이학수, 2020, 『전시 군의 문화재 보호 사례』, 『6.25전쟁과 문화유산 보존』, 6.25전쟁 70주년 계기 학술심포지엄, 국립고궁박물관, pp.21~30.
- 장상훈, 2019, 『국립박물관 아카이브 기행 15~20호』, 『박물관신문』, 국립중앙박물관.
- 장상훈, 2019, 『김재원 국립박물관 초대 관장 영문편지』, 국립중앙박물관, p.52.
- 장상훈, 2020, 『6.25전쟁 시 국립박물관의 문화유산 수호』, 『6.25 전쟁과 문화유산 보존』, 6.25전쟁 70주년 계기 학술심포지엄, 국립고궁박물관.
- 장상훈, 2022, 『한국전쟁기 문화재 부산 소개와 국립박물관의 부산 활동 연구』, 『문화재』 55(2).
- 정무정, 2020, 『한국전쟁과 국보해외소개(疏開/紹介) 그리고 록펠러재단』, 『한국근현대미술사학』 40, pp.7~25.
- 정재현, 2013, 『1954년 개헌문제와 자유당의 갈등』,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국박물관 100년사 편집위원회, 2009, 『한국박물관 100년사, 자료편』, 국립중앙박물관 한국박물관협회.
- 기시 도시히코, 2012, 『문화냉전과 아시아』, 소명출판사, p.71.
- Eugene I. Knez, 1997, 『한 이방인의 한국사랑』, 국립중앙박물관, p.41.

Reevaluating the National Museum of Korea's Evacuation and Exhibition Projects in the 1950s

KIM Hyunjung Curator, National Museum of Korean Contemporary History
gadinma@gmail.com

Abstract

This article reevaluates the National Museum of Korea's pivotal actions during the Korean War in the 1950s and its aftermath. It argues that the evacuation of the museum's collection to Busan and the subsequent exhibition "Masterpieces of Korean Art" in the United States in 1957 were not isolated events, but rather interconnected facets of a larger narrative shaping the museum's trajectory. With newly discovered archival evidence, this study unravels the intricate relationship between these episodes, revealing how the initial Busan evacuation evolved into a strategic U.S.-led touring exhibition.

Traditionally, the Busan evacuation has been understood solely as a four-stage relocation of the museum's collections between December 1950 and May 1951. However, this overlooks the broader context, particularly the subsequent U.S. journey. Driven by the war's initial retreat, the Busan evacuation served as a stepping stone for evacuation to Honolulu Museum of Art.

The path of evacuation took an unexpected turn when the government redirected the collections to the Honolulu Museum of Art. Initially conceived as a storage solution, public opposition led to a remarkable transformation: the U.S. exhibition. To address public concerns, the evacuation plan was canceled. This shift transformed the planned introduction into a full-fledged traveling exhibition. Subsequently approved by the National Assembly, the U.S. Department of State spearheaded development of the exhibition, marking a distinct strategic cultural policy shift for Korea.

Therefore, the Busan evacuation, initially envisioned as a temporary introduction to the U.S., ultimately metamorphosed into a multi-stage U.S. touring exhibition orchestrated by the U.S. Department of State. This reframed narrative sheds new light on the museum's crucial role in navigating a complex postwar landscape, revealing the intricate interplay between cultural preservation, public diplomacy, and strategic national interests.

Keywords National Museum of Korea, Evacuation, Korean War, Honolulu Academy of Arts, Chewon Kim

Received 2023. 12. 31. | Revised 2024. 1. 29. | Accepted 2024. 2. 23.

